

美 “포드항모전단 카리브해 진입”…베네수 최고수위 압박

1989년 이후 최대 군사력 배치

對베네수 군사작전 감행 주목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최강 항공모함(항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미 해군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제럴드 R. 포드 항모’ 공보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대 포드 항모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16일 애너기다 항로를 통과해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SOUTHCOM) 관할 구역에서의 이 해상 작전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 방어를 위한 초국가 범죄조직(TCO) 해체 및 마약 테러 대응 명령을 지원하라고 항모전단에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항모전단은 우리와 맞닿은 국경과 해상 영역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을 격퇴하고 해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 합동 태스크포스의 일환으로 이미 카리브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 항모 감습단이 지난 13일 대서양에서 F/A-18E/F 슈퍼 호넷과 미 공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의 지휘 아래 카리브해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해에 배치된 이오지마 감습상륙 준비단 및 이에 탑승한 해병 원정대 등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해군은 포드 항모전단이 남부사령부 작전과 전쟁부 지시 작전, 불법 마약 밀매 차단 및 국토 방어라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배치, 마약 의심 선박을 격침해온 트럼프 행

정부가 세계 최강 항모전단을 베네수엘라 연안에 보내 무력시위를 더욱 강화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 범죄조직이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를 부추기거나 돕는 독재정권이라고 맹비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군사력 증강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 병력이 해당 해상에 배치된 것이다.

AP 통신은 포드 항모전단의 투입으로 서던 스피어 작전에 투입된 미 해군 함정이 10여척이며 병력은 1만2천명이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3일 서던 스피어 작전에 대해 “조국을 방어하고 우리 반구에서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마약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 베네수엘라 직접 군사행동에 나설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베네수엘라 영토 깊숙한 곳을 전투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연합뉴스

미군 “동태평양서 마약선박 공격…‘테러리스트’ 3명 사망”



미 남부사령부가 공개한 ‘마약운반선’ 격침 및 격침 장면 동영상.

/연합뉴스

‘마약 운반중’ 주장…영상 공개

21번째 격침…최소 83명 숨겨

미군이 마약을 운반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소형 선박을 또 격침했다.

미 남부사령부(SOUTHCOM)는 1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1월 15일 합동 태스크포스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는 지정 테러 조직(DTO)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당국은 해당 선박이 불법 마약밀수에 연루돼 있으며, 알려진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고, 마약을 운반 중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남부사령부는 또 “선박에 탑승 중이던 3명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가 죽었다”며 “해당 선박은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밀수 중이었으며, 공해상에서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남부사령부는 아울러 해당 선박을 격침하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마약을 운반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소형 선박을 잇달아 격침하고 있다.

미군의 선박 공격 및 격침은 21번째이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소 80명이 숨졌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3일 엑스를 통해 서던 스피어 작전을 발표하면서 서반구에서 마약 소탕을 위한 해당 작전을 서던 스피어 합동 태스크포스와 남부사령부가 이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의 일환으로 이날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항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를 주력으로 하는 항모전단을 배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최악 가뭄 이란, 합동기도 이어 ‘구름씨 뿌리기’ 시도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이란이 인공 강우를 위해 ‘구름씨 뿌리기’에 나섰다 BBC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전날 북서부 우르미아 호수 유역에서 구름씨 뿌리기 작업을 진행했다.

구름씨 뿌리기는 구름에 응결핵이나 빙정핵 역할을 할 미세한 입자인 ‘구름씨’를 뿌려서 비를 늘리고, 인공 강우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동부와 서부에서도 이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IRNA는 전했다.

이란은 현재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있다.

강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저수지가 거의 바닥났다. 이란 기상청은 올해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8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름씨 뿌리기 작업이 이뤄진 소금 호수인 우르미아 호수도 이란 최대 호수였으나 현재는 물이 대부분 말라버려 소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면 테헤란의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할 수 있으며 “배급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면 테헤란에 주민 대피령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당국은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는 가정과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4일에는 수도 테헤란의 한 모스크에서 수백명이 모여 비를 기원하는기도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日외무성 국장, 중일 갈등 속 방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간부가 17일 중국을 방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부터 중국을 방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나이 국장이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뒤이는 쉐젠 오사가 주재 중국 총영사 소셜미디어(SNS) 글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의 진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가나이 국장은 18일 중국 측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하면서 사태 진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빠르게 수습될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쉐젠 주오사가 중국 총영사는 지난 9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안한해서는 안 된다. 불안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